*영어어문교육 12*권 1호 2006년 봄

오럴 프레젠테이션을 통한 영어수업모형

김 학 수
(강원대학교)

Kim, Hak-Soo (2006). A model of EFL instruction using oral presentation for Korean intermediate learner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2*(1), 159-181.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presentation-based instruction and to suggest a model of instruction targeted to the Korean intermediate level students learn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EFL). To achieve this objective, the author examined how the acquisition of practical English through oral presentation would enhance the students' learning motivation, language abilities, and communicative competence in concrete situations. It was confirmed that the trained leader and systematic teaching and learning are needed to maximize the effects of presentation-based instruction. In doing so, the author compared and analyzed the collected data in order to support the validity of this teaching method. It was further pointed out that the teacher should have a close look at the roles of the presenter and learner in an effort to work out the usefulness of such an instruction model. The method of presentation in classroom settings would be a practical mode to attain the essential purpose of EFL teaching particularly to get over the drawbacks of Korean students' communicative competence. As a result, it would be an effective teaching method to meet the nation's long-standing demands for EFL education.

[EFL instruction/learner-centered teaching/oral presentation method, 외국어로서의 영어교육/학습자중심 지도/구두발표방법]

Ⅰ. 들어가는 말

이 글의 목적은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로서 중급 수준의 영어학습자를 대상으로 영어능력을 고급 수준, 실제 업무 및 국제무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시키는데 있다. 영어가 대부분의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공용화되면서 영어 능력은 이제 언어자본(linguistic capital)으로 인식되고 있다(Morrison & Lui, 2000). 세계화 시대에 발맞추어 문법 및 독해 위주의 죽은 영어 교육에서 탈피하고,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용 영어 교육을 실시할 때이다. 97년 제정된 7차 교육과정(교육부, 1997[1])에서는 교육 수요자의 요구와 변화를 반영하면서 세계적 흐름에 부응할 수 있는 중간수준(intermediate level)의 영어 학습자들이 양산되었지만, 여전히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언어자본을 갖춘 인재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특히 세계적 규모의 국제회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넘어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 발표, 토의할 수 있는 ESP(English for Specific Purposes)[2]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제 언어는 더 이상 교실 안에서 학문의 영역으로 교육되기 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언어만이 학습자의 흥미를 자극시킬 수 있으며 학습 만족도 및 학습 효과를 높인다. 이에 본고에서는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한 언어교육의 교육적 효과를 살펴보고, 실제 대학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영어 교육 모형(교수법)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우선 Ⅱ장에서는 한국인 영어 학습의 문제점 및 프레젠테이션을 언어 교육에 활용하게 된 배경을 다루고, Ⅲ장에서는 영어 학습의 프레젠테이션 효과를 학습 동기 부여, 다각도 언어 능력 개발,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배양의 세 가지 관점으로 설명한다. Ⅳ장에서는 필자 자신이 수년간 한국의 중, 고, 대학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얻은 영어 교육의 경험을 토대로 영어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학생들의 인터뷰와 설문자료를 분석하여 어떻게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영어 학습에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구체적인 수업 모형을 제시한다. 그리고 Ⅴ장에서는 이 때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보충하여 프레젠테이션 교육의 활성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제 7차 교육과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영어에 흥미와 자신감을 가지며, 의사소통 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기른다.”이며, 이를 위한 교수 학습 방법의 하나로서 “시청각 자료 및 멀티미디어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흥미와 성취감을 느낄 기회를 많이 제공한다”라고 제시되어 있다.

2) ESP교육은 영어교육분야(ELT)에서 분리된 분야다. ESP 연구는 응용언어학 연구의 한부분이다. ESP는 독자적인 방법론을 갖는다. ESP의 중요한 관심은 필요분석에 중점을 둔다. ESP과정의 특징은 제한된 시간에 목적이 달성되어야 하며, 성인에게 가르친다. 1960년대 이래로 ESP는 외국어로서의 영어교육에 중요한 활동이 되었다.

II. 배경 설명

1. 한국의 영어교육

영어 공부란 결국 표현하고자 하는 인간의 내재적 동기와 호기심이 바탕이 되어 자신과 관련된 문제를 영어로 설명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통하여 자신만의 언어로 만드는 것이다. 즉, 표현하고 싶은 것을 모국어가 아닌 영어로 말하는 것이다 (Butler, 2005).

한국인은 영어를 10년 이상 공부하면서도 영어를 잘 말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데 이는 이제까지의 영어 교육이 교실에서 배운 영어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많은 한국 학생들이 살아 있는 영어 교육(영어 회화)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강압적인 학습 분위기에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를 상실한데 있다. 특히 평가 위주의 교육 풍토와 단어 혹은 문법의 암기 정도를 평가하는 지필 평가에 익숙해진 다수의 학습자들은 교사와 학습자 간, 학습자들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요하는 발표 및 토론 학습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프레젠테이션을 영어 교육에 활용함으로써 학습자 스스로가 영어 학습에 대한 필요성을 지각할 수 있도록 학습 동기를 자극하고, 학습자 스스로가 문제를 찾아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발적인 학습자 주도형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를 이끌어 갈 창의적이며, 주체적 학습능력을 갖춘 인재 육성이라는 7차 교육과정의 목표와도 일맥을 같이한다.

프레젠테이션 영어 교육은 독해와 문법 지식에 익숙해진 한국 학생들에게 언어 지식을 언어 수행으로 이끌어 가는 영어 학습으로의 커다란 변화를 요구한다. 프레젠테이션 교육을 통해 표현 영어를 습득하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언어 표현 방법을 익혀 생활 영어 수준을 넘어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

2. 프레젠테이션 활용

프레젠테이션은 사회과학에서 중요한 기술이다(Shaw, 1999). 프레젠테이션은 복잡하고 비구조화된 문제 상황에서 학습자 스스로 자신이 가진 생각과 자료를 발전시켜, 문제를 해결해가는 활발한 교육 방법이다(Bonwell & Eison 1991). 그러나 프레젠테이션을 외국어 학습에 적용하여 연구한 자료는 보기 드물며, 대부분의 연구는 모국어 학습이나 public speaking에 관한 연구들이다.

국내에서는 최근 “소리클럽”이라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한 영어 학습에 대한 중요성이 소개되고 있으며, “프레젠테이션 영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의 참고서가 시중에 나와 있다. 물론 카이스트를 비롯한 몇몇 대학에서 대학생을 중심으로 듣고 말하는 연습을 위해서 프레젠테이션이 수업시간에 활용되고 있지만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한국의 경우 영어 프레젠테이션은 학생들이 수업 받기를 기피하는 과목이며 외국인 교수의 회화시간에 종종 활용되고 있을 뿐 한국인 강사의 경우 프레젠테이션 수업이 별로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해외에서는 영어권 대학뿐만 아니라 비영어권 국가의 대학에서도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시킬 수 있는 영어 프레젠테이션 교육이 보편화되어 있다. ESP(English as a special purpose)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호주나 뉴질랜드, 영국, 네덜란드 지역의 대학에서는 프레젠테이션을 학습의 매우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언어학의 세계적 권위자인 Holiday 교수가 재직하고 있던 시드니 대학을 비롯하여 필자가 교환 교수로 있던 호주, 뉴질랜드 대학들은 프레젠테이션을 학부 학생들의 필수과목으로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Geoghegan(1983)이 케임브리지대학에서 첫 학기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세미나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42%가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응답했다. 그리고 23%의 학생이 쓰기(writing)를, 20%의 학생이 필기(note taking)를, 4%의 학생이 읽기라고 응답했다. 물론 프레젠테이션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interaction)이 일어나는 세미나와는 달리 Q/A를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발표자가 혼자서 발표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발표자의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모국어든 외국어든 프레젠테이션에 학생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교사의 주입식 교육에 익숙한 한국 학습자들 특히 외국어 구사 능력이 떨어지는 학습자에게는 이중 삼중의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학습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에 한국 실정에 맞는 교수법 개발이 시급하다.

교육적 수요와 실전 영어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한 한국 대학들도 더 이상 프레젠테이션을 외면할 수는 없다. 제대로 교육할 강사가 없다거나 교육 커리큘럼의 부재로 프레젠테이션 교육을 피할 수만은 없으며 이제 한국 실정에 맞는 교수법을 개발하고 프레젠테이션 교육에 대한 이해와 활용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결국 프레젠테이션을 통한 영어 교육이 교육적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잘 짜인 프로그램이 필수적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는 Ⅳ장과 Ⅴ장에서 계속하기로 한다.

III. 영어학습의 프레젠테이션 효과

프레젠테이션은 단순한 영어 표현의 한 가지 기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기술을 요하는 복합 교육이다. 미국에서는 항상 수업에 프레젠테이션이 등장하며, 발표 수업의 형태로써 학습한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교수 방법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프레젠테이션은 발표자가 실제 상황에 따라 청중을 파악하고 그들의 요구에 따라 언어활동을 조절해야 하는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활동이기 때문이다(William, 2004). 또한 프레젠테이션을 통한 영어수업은 학습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관점에서 프로젝트 중심 학습(project-based learning)과 유사한데 이는 프레젠테이션이 학습자로 하여금 주제와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다양한 스킬을 요구하기 때문이다(김남순, 2005).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최근의 경향은 첫째, 듣고 말하는 능력, 둘째, 읽는 능력, 그리고 셋째, 문법적 지식인데 이는 University of Texas, Yale University, 그리고 Middlebury College를 비롯한 대부분의 명성 있는 대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Freeland & Haydon, 1992). Clackamas대학의 Magdalena & Ladd(1970)의 연구에서는 학생들에게 학기 별로 3-4개의 주제에 대해 발표를 하도록 하였는데, 프레젠테이션이 다음의 네 가지 관점에서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① 이 방법은 학생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선택하여 발표하게 함으로써 발표자에게는 발표력 신장을, 다른 학습자에게 유익한 정보의 획득을 가져다준다.
② 연역적 사고 능력을 길러 주고, 숙어 및 어휘 등을 보다 간결하고 쉽게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 주며, 적극적으로 사전을 활용하도록 도와주어 외국어의 사용 기회를 늘려 준다.
③ 일차적으로는 학습자들의 발표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외국어 사용에 자신감을 심어주며, 이차적으로는 학습자들이 주제와 관련한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④ 자신이 선택한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기 간행물을 구독하게 되고, 다양한 도서관 자료를 접하게 됨으로써 폭넓게 읽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 준다.

프레젠테이션은 학습한 언어를 연습하고 응용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또는 집에서 자신의 언어로 발표 연습을 하면서 자신감을 기를 수 있다. 학생들은 연습, 리허설, 발표에 이르는 준비 과정을 통해 효과적인 언어 학습 향상이 가능하다. 인터뷰에

의하면 제대로 진행되는 수업의 경우 학생들의 학문적 그리고 개인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놀라운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급 이상의 수준을 갖춘 영어 학습자의 경우 프레젠테이션 교육을 통해 영어 능력이 향상되었고, 언어 사용이 증가하였다(Avery, 1999).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프레젠테이션의 교육적 효과를 자세히 살펴보자.

1. 학습 동기 부여

언어를 학습하려는 학생들에게 실제 언어가 필요한 학습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언어 학습에 있어 프레젠테이션 교육은 언어 학습자들에게 자신이 익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실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 이를 통해 이차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내게 되는 데 영어 능력과 관련된 학습자의 인지 발달 및 동기 형성이 바로 그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중급 레벨의 언어 학습자들의 경우 단순한 단어 암기 혹은 문법 위주의 교육 방법에 점점 흥미를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agdalena & Ladd, 1970). 왜냐하면 수요자 중심 교육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학습 활동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나는 교수법의 개발과 도입이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의사소통 교수법이 각광을 받는 데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이 방법은 문법 번역 교수법, 직접 교수법, 청각 구두 교수법에 비해서 학습자나 지도자의 요구와 기대를 동시에 채울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문법적 능력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까지도 습득 할 수 있다. 둘째, 의사소통을 위한 태도와 국제적 이해를 기를 수 있다(기무라 야스꼬, 2003).

이러한 의사소통 교수법의 일환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통한 영어 교육의 도입은 분명한 영어 사용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들에게 영어 학습에 대한 외재적, 내재적 동기를 부여한다. 학습 과제를 부여함으로써 외재적 학습 동기를 높여주며, 학습자 스스로 프레젠테이션의 가치와 효과를 인식함으로써 내재적 학습 동기를 높여준다. 장기적 측면에서 내재적 학습 동기 유발은 매우 중요하다.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한 영어 학습이 언어 능력의 향상은 물론 표현 능력의 향상을 위한 도구임을 학습자가 인지함으로써 스스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학습 참여를 통한 성공적인 학습 경험이 많아질수록 영어 사용 및 발표에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학습자가 자칫 학습 과정을 중압감으로 느끼지 않도록 학습 환경을 잘 구성해야 하며, 발표에 소극적이거나 실패를 두려워하는 학습자를 위한 교사의 배려와 관심도 필요하다.

2. 다각도 언어 능력 개발

Dudley-Evans와 St. John(1998)은 프레젠테이션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구조(structure), 비주얼(visual), 전달(delivery)을 들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학습자의 언어능력을 다각적으로 계발하는데 필요하다. 예컨대 프레젠테이션의 전달 내용에 대한 배경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사전에 자료를 수집한다. 학습자는 다양한 자료를 접하는 과정에서 독해 능력이 향상된다. 그리고 비주얼 도구를 사용하여 발표 자료를 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쓰기 능력이 향상된다. 또한 준비한 내용을 연습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는 말하기 능력이, 다른 발표자의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과정에서는 듣기 능력이 향상된다.

결국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정보를 청중에게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의 네 가지 기능인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능력이 필요한데 이 모든 의사소통의 영역이 프레젠테이션에 포함되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미래 사회의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영어 교육의 목적이라면, 결국 프레젠테이션 학습은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능력을 골고루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교수법인 것이다. 다음은 영역별로 언어 학습에 적용시켜 프레젠테이션의 교육적 효과를 살펴보겠다.

1) 읽기 능력

발표자는 자신이 선정한 주제에 대한 배경지식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하고 적절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자신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로 인해 학습자의 읽기 능력은 향상된다. 프레젠테이션의 경우 발표자는 항상 청중의 질문에 대비하여야 하므로 발표한 주제에 대해 완벽하고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마쳐야 한다. 결국 한 번의 발표 준비를 통해 발표자는 수많은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해하며 자신의 언어로 완벽하게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직, 간접적으로 읽기 능력이 향상된다.

2) 쓰기 능력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에 있어 발표자의 쓰기 능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발표자는 발표를 위해 차트(charts), 파워포인트 혹은 OHP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텍스트 및 비주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표자는 핵심 어구와 키워드를 뽑아내는 작업을 하게 된다. 발표 장표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발표자

는 발표할 내용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게 된다. 여기서 표현이란 단순한 문장구성이 아니다. 표현이란 청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분명하게 키워드를 뽑아내는 과정이다. 장표 작성 시 발표자는 작문 과정(계획하기, 작문하기, 재고하기, 조정하기)을 익히게 되며, 비주얼 도구 및 매체 활용 방법, 사고를 조직화하는 방법을 익히게 된다.

프레젠테이션은 교수 한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 즉 다수의 다른 학습자들에게도 보이는 것이므로 장표 하나 하나의 내용과 구성에 있어서 발표자의 끊임없는 고민과 다듬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로써 발표자는 자연스럽게 쓰기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3) 말하기 능력

프레젠테이션을 통한 영어 학습의 핵심은 실제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능력 향상에 있다. 발표자는 단순히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의 지식 수준을 고려하여 상황에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고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해진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프레젠테이션에서 말하기는 항상 청중을 염두에 둔다. 즉 청중의 이해 수준을 고려한 적합한 내용을 선정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청중의 반응을 고려하여 이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능력은 청중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와 다양한 발표 경험을 통해 습득된다.

프레젠테이션은 결국 청중에게 자신이 말하려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어휘나 문장을 사용해야 하며, 정확한 발음을 구사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주어진 사간 안에 지루하지 않게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언부언하지 않고 주어진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발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숙련된 발표자의 경우에도 10분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몇날 며칠을 준비한다. 프레젠테이션의 교육적 효과는 바로 이러한 준비 과정에 있다. 여러 번 반복한 내용은 기억에 오래 저장되며 머릿속으로 외운 단어와 문장을 다수의 청중 앞에서 구조화하여 입 밖으로 꺼내는 과정을 통해 그 단어의 쓰임새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이로써 한국학생들은 영어식 문장의 구성과 논리적 표현 방식에 익숙하게 된다.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이 내용 전달임을 볼 때, 청중이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의 크기와 정확한 발음은 매우 중요하다. 정확한 발음의 구사 능력은 발표자가 자신감을 갖고 발표할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적절한 발음 능력 없이는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이 심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확한 발음보다는 이해 가능한 발음(intelligible pronunciation)이 의사소통능력의 필수요소(Morley, 1991)이며, 프레젠테이션에 있어서도 발표자가 자신의 발음이 이해 가능한 발음인지를 인식하도록 상기시켜 줘야 한다. 결국 효과적인 발표 준비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습과 긍정적인 발표 경험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학습자는 말하기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으며, 대중 앞에서도 영어 사용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4) 듣기 능력

카세트테이프나 방송의 원어민 화자의 발음에 익숙해진 학생들이 한국 악센트가 분명한 비원어민 화자의 발음을 듣고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오늘날 영어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구사하기 때문에 다양한 발음에 익숙해지는 것이 의사소통 시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한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여러 학생들이 발표를 통해 자신과 유사한 문제를 가진 다른 사람의 발음을 듣고 자신의 발음의 약점을 찾아 고칠 수 있으며 타인의 발표를 듣고 이해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발음과 악센트에 익숙해 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글로벌 사회에서 영어는 미국인 혹은 영국인들만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영어를 듣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3.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배양

언어 학습은 기본적으로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로 구성되며 프레젠테이션 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이 어떻게 언어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영역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러나 단순히 읽고 쓰며 말하고 듣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언어활동을 둘러싼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적절한 태도를 취할 줄 모른다면 훌륭한 커뮤니케이터라고 할 수 없다. 훌륭한 커뮤니케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네 가지 기본적 언어 능력 외에도 언어활동을 둘러싼 상황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사회적 언어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Harris, 1997). 사회적 언어능력은 프레젠테이션의 핵심인 청중에 대한 이해 및 고려, 청중의 흥미와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한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신장시킬 수 있다.

발표자가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전달한다 하더라도 청중의 흥미를 자아내지 못하거나 청중이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발표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발표자는 청중의 특징을 충분히 파악하여 프레젠테이션 준비에 반영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청중들은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된 후 초반에는 관심을 기울이지만 지

속적인 자극이 없으면, 쉽게 산만해지며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진다. 청중이 오랜 시간 집중하지 못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를 학습 이론을 적용시켜 살펴보자.

우선 인간의 두뇌는 정보를 수용하는 용량이 한정되어 있어 일단 정보가 주어지게 되면 선별 과정을 거친다. 매일 우리 주변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이 너무 많아 우리의 뇌는 신정보와 구정보를 결합하여 수용하게 되는데 이 때 그 결합의 기준으로는 잘 아는 것(familiarity), 경험 그리고 개인적 관심이다. 또한 청자가 선택적으로 지각하는 내용은 사람마다 다르며 그에 대한 해석도 제각각이다. 따라서 발표자는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명확하고 간결한 언어의 사용으로 청자의 해석의 범위를 좁혀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중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메시지를 수용할 것이라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Shiffrin & Schneider 1977).

뇌용량의 한계 및 선별적 지각 이외에 청중이 쉽게 주의가 산만해지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인간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인간의 최대 집중 시간은 약 5분에서 8분 정도이며, 실제 발표 시 청자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이보다 짧다. 따라서 뇌의 엄청난 능력에도 불구하고, 청중들을 발표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결국 청중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프레젠테이션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발표자의 메시지는 단기 기억에조차 머물기 힘들다.

또한 신정보와 구정보 간의 관련성 여부가 청자의 집중도에 영향을 미친다.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정보 중 청중의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수 있는 정보는 이미 청중이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과 관련 정도가 높은 정보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발표자가 제한된 시간 안에 청중의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청중의 배경지식과 관련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이러한 이론적 사실들에 대한 교육은 학생들이 직접 발표자가 되어 프레젠테이션 하는 과정과 병행될 때 효과적이다. 한두 번 프레젠테이션 경험이 쌓일수록 학습자는 자연스럽게 보다 효과적인 자신만의 프레젠테이션 노하우를 습득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실전에 앞서 프레젠테이션을 경험하여 청중의 반응을 예상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 때문에 중급 언어 학습자들의 수준에서 이러한 프레젠테이션 교육은 및 프레젠테이션 경험은 언어가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전제로 하는 언어의 기본 방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 또한 앞으로의 언어 학습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동기를 부여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요약하면, 프레젠테이션을 영어 교육에 활용함으로써 다음의 세 가지 면에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 실제 영어 사용 환경을 학습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영어 능력 습득과 활용에 대한 내적, 외적 학습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둘째,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영역을 골고루 포괄하는 다각적인 언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셋

째, 청중의 입장과 수준을 고려한 발표 준비를 통해 외국어 구사에 있어서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이 배양되며, 영어 교육의 궁극적 목적인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다양한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Ⅳ. 수업 모형 개발과 프레젠테이션 활용방법

본 장에서는 프레젠테이션을 영어 교육에 활용한 사례 조사 및 호주 울릉공 대학(University of Wollongong)에서 필자가 연구교수로 머물면서 한 학기 동안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동아시아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프레젠테이션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학생들에게 적합한 수업 모형 및 발표에 필요한 준비 사항을 제시한다.

1. 프레젠테이션 수업 모형

1) 사례 조사: 네덜란드 마스트리트 대학(University of Maastricht)의 영어 프레젠테이션 교육

네덜란드 마스트리트 대학에서는 국제 경영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교과 영어 수업을 진행 중에 있다. 때문에 이 대학에 입학한 1학년 학생들은 필수적으로 영어 프레젠테이션 교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본 과목은 방학 때 주3일 수업으로 2주간 개설되는 계절학기 개념으로 2시간씩 총 12차시의 수업이다. 학생들은 이 수업을 이수하며, 총 5번의 프레젠테이션의 기회를 갖게 되는데 각각의 프레젠테이션은 비디오로 녹화되며 함께 분석하는 시간을 통해 개개인 학생이 가지고 있는 프레젠테이션 상의 습관적인 문제점을 찾아 개선시키고 것과 다양한 스타일의 프레젠테이션을 경험하여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는데 중점을 둔다. 영어 프레젠테이션 과목은 비즈니스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실제 비즈니스 환경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이라는 점에서 필수 이수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다. 다만 본 과정을 학습하는 대상자들의 영어 능력이 전반적으로 높고, 본 교과목이 영어 능력향상보다는 프레젠테이션 자체에 초점 맞춰져 있어서 그대로 한국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용시키기에는 문제가 있다.

2) 실험 모형: 호주 울릉공 대학(University of Wollongong) ESL 학생들 대상 영어 프레젠테이션 교육

필자가 연구교수로 호주의 울릉공 대학에 머물 때, 한 학기 동안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ESL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 강의를 실시하였다. 전체 학급 인원은 24명이며, 이들의 영어수준은 토플 520점 이상, 평균 외국 거주 6개월 이상 1년 미만 대학생들로 주로 한국, 일본, 중국, 대만 국적의 학생들이다. 이들은 기본 적인 영어 의사 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토론, 발표 등이 포함된 전공 교과목을 이수하기에 앞서 영어 프레젠테이션 교과목을 수강한 프레젠테이션 학습에 대한 동기가 강한 학생들이었다.

수업은 매주 2시간씩 총 10회에 걸쳐 이루어 졌으며, 수업 참여자 각각은 총 5~6번의 발표 기회를 갖는다. 대략적인 수업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파트너 소개 (1분)

두 명씩 짝을 지어 약 5분간 영어로 서로 자기소개를 한 후, 두 명씩 교실 앞에 서서 약 1분 동안 파트너를 다수의 청중에게 소개한다.

(2) 자신이 아끼는 물건 소개 (1~2분)

각자 1~2분 동안 자신이 아끼는 물건을 소개함. 발표할 물건을 미리 준비해 온다. 자신이 아끼는 CD, 사진 등 구체적인 물건을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이는 혼자서 교실 앞에 서 있는 두려움을 감소시켜준다.

(3) 비주얼 도구 사용하기 (2~3분)

주제는 자유이며, OHP, 파워포인트 등의 비주얼 도구를 사용하여 자신이 말하려는 바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4) 정보 전달 (2~3분)

주제와 형식은 자유이나 자신이 잘 아는 정보에 대해 상대적으로 정보를 적게 가지고 있는 청중에게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5) Final 발표 (3~5분)

본 발표는 같은 내용으로 두 번에 걸쳐 진행되며, 첫 번째 발표는 녹화된 후 팀별 문제점 분석 시간을 통해 개개인의 잘못된 발표 습관을 수정할 기회를 제공함. 마지막 발표에서는 이제까지 사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수 있으며, 청중의 반응을

이끌어 내는데 유의하도록 해야 한다.

3) 한국 학생들을 위한 수업 모형 예시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학습자는 한국에서 정규 중고등 교육을 받아 영어에 대한 기초 문법 지식 및 기본적인 언어 구사 능력을 가진 중급 수준의 학습자이다. 이는 앞서 제시했듯 제7차 교육과정을 통해 일상 회화 수준의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학습자가 양성되었음을 전제한다. 일상적인 회화가 가능한 학습자들은 이제 실제 업무에서 필요한 수준의 언어를 습득해야 하며 적절한 수준의 언어 교육 및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경험이 없는 학습자들이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까지의 학습과정에서 영어 프레젠테이션은 물론 모국어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조차 체계적인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 본 네덜란드 마스트리트 대학의 사례 연구 및 호주 울릉공 대학에서 ESL 수강생을 대상으로 실험적으로 실시했던 프레젠테이션 교육을 토대로 하여 한국의 중급 영어 사용자들을 위한 수업 모형을 제안한다. 본 수업은 영어의 자음 및 모음의 올바른 발음법을 익히는 것으로 출발하여, 5분 자기소개, 3분 자유 주제 스피치, 5분 주제 발표 등으로 다수의 청자 앞에서 영어로 자기표현을 늘려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다음은 한 학기를 단위로 필자가 제시한 수업모형이다.

표 1
수업 모형 예시

주	수업내용
1주	Getting to know each other (Partner introduction)
2-3주	Basic Presentation Skill & Pronunciation Correction
4-5주	Self Introduction
6-7주	Free-style Presentation (with object)
8주	Midterm Presentation
9주	Video Education (Best practice samples)
10-11주	Visual Aids Presentation: Free topic
12-13주	Illustrative Presentation: Free topic (video taping)
14주	Analysing presentation style and learning (using videotape analysis)
15-16주	Final presentation

2. 프레젠테이션 자료

1) 주제 선정

주제는 교사가 제시해 주기보다 큰 범위만 제시하고 그 속에서 학습자들이 자유롭게 주제를 결정하도록 한다. 학습자의 주제 설정과 관련한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간혹 주제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하여 내용이 모호하고 부실해지기도 하며, 때로는 너무 좁게 설정한 나머지 내용 생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학습자를 위해 주제 설정 단계에 대해 지도를 하고, 협력 학습을 통해 주제를 선정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하여, 스스로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한 주제를 자신 있게 설정하도록 유도한다.

주제를 표현하는 텍스트의 유형은 수사학적으로 볼 때 비교적 간단한 것일수록 청중이 이해하기 쉬우므로 시작은 시간적으로 배열된 서사 텍스트로 하되 주제에 따라,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설명 텍스트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청중 파악

청중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그들의 시선을 얼마나 집중시키느냐에 따라 발표 수업의 성패가 결정된다. 발표자는 청중의 외적 요소(나이, 성별 등) 및 내적 요소(관심사, 입장, 배경지식, 태도 등)를 충분히 고려하여 청중의 수준에 맞는 발표 자료를 준비하도록 한다.

3) 자료출처 명시

발표자가 발표 준비를 위해 다양한 매체로부터 폭넓은 정보를 수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인용하고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반드시 밝히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출처가 분명한 자료 및 정보는 당장의 소용에는 영향이 없더라도 훗날 다른 과제 해결이나 문제 해결 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4) 시각자료 사용

일반적으로 차트(Chart), 파워포인트 혹은 OHP 등의 비주얼 도구는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준다. 우선 청중들에게는 감각적 자료 제시로 구체적인 인상을 심어 주고, 전개될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청중들의 이해를 돕

는다. 발표자에게는 긴장감을 풀어주고 발표의 집중력을 높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주얼 사용 시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양을 준비하고 미리 사용해 보도록 하는 등의 유의사항을 파악하도록 한다.

3. 프레젠테이션 준비

1) 논리적 체계 구성

프레젠테이션 구성에 있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세부적인 내용에 집착한다는 것이다. 논리적 체계를 갖추지 못한 프레젠테이션은 청중의 주위를 분산시키며 효과적인 내용 전달을 방해한다.

따라서 프레젠테이션의 논리적인 체계에 신중을 기하고 특히 영어 문단 구성의 특징인 연역적 구성 방법을 활용하도록 한다. 또한 프레젠테이션의 전체 개요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중요한 내용과 세부적인 내용을 구별하도록 한다.

2) 장표 구성

프레젠테이션의 전체적인 체계가 잡히면 비주얼 도구를 활용하여 장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때 장표 내용은 적절한 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한 장표에 많은 양의 내용을 담게 되면 청중이 미리부터 읽기를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절한 양의 내용을 담게 하고 청중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용 자료의 기본 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영어 식 발표에 3단 논법을 이용하여 조직하게 한다. 즉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소개를 앞에 제시하고, 본격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중간에 제시한 뒤, 했던 이야기를 요약, 정리하는 순으로 영미식 의사소통 방식을 장표 구성에서도 따르게 한다. 장표 구성을 통해 학습자는 장표를 효과적으로 구성하는 방법과 영미식으로 사고하는 방법 등을 익히게 된다.

3) 언어 사용

페이퍼 쓰기와는 달리 프레젠테이션은 청중이 메시지를 한 번에 이해하면서 들어야 한다(Renfrow & Impara, 1989). 발표는 문어체가 아니라 청중의 이해를 목적

으로 하는 구어체 중심의 활동이기 때문이다. 보통 영어 발표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발표 준비 시 한글로 말할 내용을 마련하고 이를 다시 영어로 번역하여 암기 한 뒤 연단에 선다. 이로 인해 발화 문장은 간단한 구어체 영어가 아닌 길고 복잡한 번역 투의 문어체 문장이 되어 버린다. 이에 발표자로 하여금 어려운 단어나 길고 복잡한 문어체 문장보다는 청중의 수준을 고려하여 쉬운 단어와 간결한 구어체 문장을 구사하도록 지도한다.

4) 시각자료 및 메모카드 활용

파워포인트 등의 다양한 시청각 매체를 활용하면 청중의 관심을 끌고, 이해를 도모하며, 효과적인 전달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은 앞서 이미 설명하였다.

단, 비주얼 자료는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도구로써 사용하여야 한다. 발표자가 비주얼 자료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자료를 읽는 것에 그치지 않도록 한다. 프레젠테이션이란 준비한 자료를 그대로 읽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해한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소개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또한 발표자는 사용할 장비를 미리 점검하여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대비하도록 하고 매체 활용에 익숙해질 때까지 충분히 연습하도록 한다.

5) 연습 및 시간배분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방법은 연습이 최고다. 연습은 발표자의 말하기 불안을 해소해 주며, 프레젠테이션의 전체적인 흐름을 부드럽게 해준다. 연습을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팀을 구성하여 연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듯하다. 팀 동료들을 청중으로 삼아 프레젠테이션을 해 봄으로써 상호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혼자서는 알아차리지 못한 여러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가족이나 룸메이트 심지어 거울에 이르기까지 훌륭한 연습 상대는 많이 있으므로 주변의 연습 상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녹음, 녹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발음과 목소리, 무의식적으로 행해지는 그릇된 습관 및 태도 등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의 발표 연습 과정을 녹음, 녹화하여 발표상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고쳐나가는 훈련을 하게 한다.

시간 안에 발표를 마치는 것 역시 발표자의 중요한 능력 중의 하나이다. 충분한 연습은 발표자가 연단에서 중언부언하지 않고 필요한 말만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모든 학습자에게 고르게 발표할 시간을 부여하고, 발표자는 이를 정확히 지킴으로써 발표 후 논의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프레젠테이션이 실용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반적으로 자신이 외워 발표해 본 내용이 기억에 오래 남기 때문이다. 학습자가 단순히 외우는 것만으로도 언어상의 교육적 효과는 대단하다. 그러나 긴장 상태에서 외운 내용이 기억나지 않을 경우 발표자는 당황할 수도 있다. 또한 외운 내용에 몰입하여 발표가 낭송이 되어 버린다면 청중의 반응을 이끌어 내거나 청중의 반응에 대처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표자는 발표할 내용을 머릿속에 숙지한 후 충분히 연습을 하여 프레젠테이션에 임해야 한다.

4. 프레젠테이션의 실행

영어 프레젠테이션에서 영어 발음 능력은 영어 전달의 자신감과 관련이 깊다. 교사는 학습자가 정확히 발음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학습자 스스로 꾸준히 억양과 발음을 점검하게 한다. 듣기 훈련이 잘 되어 있는 학습자들은 스스로 자신의 영어 발음을 녹음, 청취하며 원어민의 발음과 비교해 봄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려고 한다. 교사는 모든 학습자들이 이러한 학습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어민 교사를 초청하여 발음을 교정해 주도록 한다.

프레젠테이션은 청중을 향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하므로 청중의 이해력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청중의 흥미를 불러 일으킬만한 주제를 선정하고 청중의 지식수준을 고려하여 비교적 쉬운 단어와 구어체 영어를 구사해야 한다. 영어 프레젠테이션은 청중에게도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반대로 청자가 발표자의 프레젠테이션에 집중하도록 하는 방법으로써 보상이라는 강화의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청중에게 발표에 관련된 질문을 마련해 보게 한다든지 발표한 내용을 비판해 보게 한다든지 하여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학습자에게 강화를 주어 프레젠테이션에 집중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5. 프레젠테이션 평가

평가는 청중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청중의 피드백은 발표자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점을 반성하게 하며 다음 프레젠테이션의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발표자와 청중과의 활발한 상호작용은 협동심과 사회성 발달에도 매우 유익하다. 일반적으로 좋은 피드백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1) 피드백 주는 입장

피드백은 상호간에 신뢰와 이해가 바탕이 되었을 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 피드백 제공자(교사, 청중 학습자)는 상대방을 진심으로 돕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선의의 의도로 정직하게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처음 몇 분은 프레젠테이션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언급하고 점차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평가하도록 한다. 그리고 평가자의 직관과 지식(intellect)을 적절히 종합한 평가를 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평가자는 발표자의 프레젠테이션에 대해 분명하고 명확하게 지적해야 한다. 단순히 '좋다, 나쁘다, 프로페셔널 하지 못하다' 등의 가치 판단과 불분명한 지적은 피평가자의 감정을 상하게 할뿐더러 평가를 납득시키기 어렵게 한다. 따라서 평가자는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피드백 훈련을 통해 평가의 안목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잘못된 부분을 비판하는 데 몰두하기보다는 더 잘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 프레젠테이션 기술과 영어 학습 능력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을 통해 발표자는 물론 청중 학습자들도 피드백으로 인해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한편 개별적인 만남을 통해 피드백해주는 방법도 있다. 비판을 잘 수용하지 못하는 학습자나 소극적인 학습 참여자의 경우 비판을 받는 것에 익숙해 있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공개된 장소에서 평가를 하여 그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면 오히려 피드백을 하지 않느니만 못 할 것이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받는 훈련을 통해 점차 공개된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상호작용을 통한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지도해야 한다(Bushardt & Fowler, 1989).

2) 피드백을 받는 입장

많은 경우 발표 후 피드백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지만 청자의 반응을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발표자는 다음 프레젠테이션을 더 잘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피드백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선 발표자는 심호흡을 통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한 후, 진지한 태도로 평가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한다. 피드백 제공자가 말하는 중간에 끼어들거나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식의 방어적인 태도, '어찌어찌해서 그랬어요' 식의 변명하는 태도는 피한다. 평가자의 피드백에 대해 명확히 이해해야 하며, 불확실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예를 요청할 수 있다.

프레젠테이션 중간에도 피드백을 받게 되는데 이때에는 청중들의 비언어적 표현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발표 도중 청중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다면 청중들에게 질문을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청중이 잠이 든다고 해서 자신의 발표가 지루하기 때문이라고 짐작하여 움츠러들 필요는 없다. 물론 실제로 지루하여 조는 경우 일 수도 있으나 청중의 반응을 해석할 때 섣불리 판단하여 오히려 프레젠테이션을 그르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3) 수업 평가 방식

수업의 목적이 영어 프레젠테이션 능력의 향상임을 고려하여 모든 평가는 영어 학습 동기를 자극시켜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평가시 구성원 모두를 평가에 참여시킨다. 이는 타인의 프레젠테이션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분석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프레젠테이션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평가하는 안목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평가 항목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발표자를 비롯하여 청중 모두가 자기 점검 및 상호 평가의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자와 학습자, 교사와 학습자 간의 활발한 논의와 평가는 그 과정 자체만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며 구성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인 평가 항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1) 전달 내용: 내용 배열순서, 논리적 구조, 청자에 대한 고려, 시간 안배
(2) 언어 내용: 정확하고 쉬운 단어, 간결한 구어체 문장 사용 정도
(3) 음성 평가: 어조, 속도, 목소리의 크기, 발음 및 억양
(4) 전달 방법: 비주얼 도구의 적절성, 청중을 포함한 상황에 대한 고려정도, 관심과 흥미 유발 정도
(5) 화자 태도: 바른 자세, 표정, 시선, 몸동작, 발표에 대한 자신감과 집중력 등

지금까지 프레젠테이션 과정을 분석하여 학습자를 위한 실용 영어 수업 모형을 제시해 보았다. 다음은 프레젠테이션을 보다 원활히 이끌어 갈 지도자와 학습자의 역할 및 요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Ⅴ. 프레젠테이션 교육의 활성화 방안

프레젠테이션 교육의 장점은 도입에 있어 제반 여건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프레젠테이션 교육에서 학습자의 교육에 대한 열의 및 지도자의 교수법 및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다음에서는 보다 높은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 이들 각각에게 필요한 역할 및 요건을 알아보자.

1. 학습자의 역할과 요건

프레젠테이션을 직접 수행하는 사람은 바로 학습자며, 이들은 프레젠테이션의 가장 중심이 있는 사람들이다. 프레젠테이션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학습자는 무엇보다 영어 (외국어)를 영어(영어를 도구로 삼아)로써 잘 해보겠다는 강한 동기와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영어 말하기에 대한 학습자의 내재적 동기와 의지만큼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동인은 없다.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와 학습 동기는 그동안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학습태도를 보인 학습자를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학습 태도를 가진 학습자로, 연구자로, 그리고 문제의식을 가진 자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성공적 프레젠테이션이 거듭될수록 학습자 스스로 프레젠테이션의 효과를 직접 체험하게 될 것이다.

2. 지도자의 역할과 요건

1) 교사의 과도한 욕심 버리기

영어 프레젠테이션 자체에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를 고려하여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를 테면 수준이 비슷한 학습자끼리 짝을 이루게 하고 1분 동안 자기 소개하기를 통해 학습자 간에 서로 친밀해지는 시간을 갖게 한다. 그리고 말하기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해 나가며 경직된 수업 분위기를 우호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이러한 시작을 바탕으로 하여 많은 프레젠테이션 경험을 통해 학습자는 놀라운 학습 성취를 이뤄갈 수 있다.

2) 환경 설정

경직된 수업 환경은 언어 전달력을 크게 떨어뜨린다. 교사는 학생들이 중압감과 위협에서 벗어나 서로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외국어 학습

과정에 있어 인지적 요인 못지않게 정의적 요인도 중요하기 때문이다(Krashen, 1982, p. 31). 허용적이고 자유로운 수업 분위기는 학습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하여 그들이 가진 잠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한다.

3) 쉬운 영어 사용 유도

중압감은 언어 습득의 적이다. 따라서 쉬운 영어를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설명적 텍스트보다 서사적 텍스트를 활용하고, 자신 있는 주제를 스스로 선정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하게 한 것도 쉬운 영어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방편이다. 평가 항목에도 쉬운 단어와 짧고 간결한 구어체 영어의 사용 여부를 점검하게 하여 보다 쉽게 영어를 사용하게 한다.

Ⅵ. 맺음말

지금까지 프레젠테이션을 통한 실용 영어 습득이 학습의 동기를 부여하고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며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음을 고찰해 보았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수업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이끌어갈 지도자와 학습자의 역할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영어 학습에 프레젠테이션의 도입은 필수적이다.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1세기 우리 교육이 지향하는 인재 육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프레젠테이션 학습 기법을 제안한다. 프레젠테이션의 활용은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영어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이 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취약한 영어 교육 환경에서 한국 학생들의 약점을 최대로 극복하고 그들의 수요를 외국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수법이 될 것이다.

프레젠테이션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숙련된 지도자와 치밀한 교수·학습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목표인 영어 프레젠테이션의 교육적 효과를 수치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여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영어 토론 학습이 영어 능력 향상에 어느 정도 이바지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측정·분석하는 연구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남순. (2005). EFL 상황에서의 포르젝트 학습법 활용방안. *영어어문교육*, *11*(1), 57-64.

교육부. (1997). 제7차 교육과정 외국어 해설. 교육부 고시 제1998-10, 11, 12호.

기무라 야스코. (2003). *토론을 통한 한국어 수업모형*. 전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very, S. (1999). *Teaching advanced skills in English studying: The work of speak-write project*. London: Anglia Polytechnic University Press.

Bonwell, C. C., & Eison, J. A. (1991). *Active learning: Creating excite-ment in the classroom*. Washington: DO School of Education and Human Development,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Press.

Bushardt, S. C., & Fowler, A. R. (1989). The art of feedback. In J. W. Pfeffer (Ed.), *The 1989 annual: Developing Human Resources*. San Diego, CA: Universities Associates.

Butler, U. G. (2005). Comparative perspectives towards communicative activities among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 South Korea, Japan, Taiwan. *Language Teaching Research*, *9*(4), 423-446.

Dudley-Evans, A., & St. John, M. J. (1998). *Developments in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Freeland, A. E., & Haydon, C. E. (1992). Ten years of aural-oral teaching of language at Arlington State. *Journal of the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68*(1). Arilington, VA: Foreign Service Institute.

Geoghegan, G. (1983). *Non-native speakers of English at Cambridge University*. Cambridge: Bell Education Trust.

Harris, M. (1997). Self-assessment of language learning in settings. *English Language Teaching Journal*, *51*(1), 12-20.

Krashen, S. D. (1982). *Principle and practice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xford: Pergamon Press.

Magdalena, M., & Ladd, B. (1970). Motivation through major interests in intermediate foreign language learning. *MLJ Issue*, *54*(3), 45-62.

Morley, J. (1991). Oral communication in TESOL: Integrating speaking, listening and pronunciation. *TESOL Quarterly*, *25*(3), 51-75.

Morrison, K., & Lui, I. (2000). Ideology, linguistic capital and the medium of

instruction in Hong Kong. *Journal of Multilingual and Multicultural Development*, *21*(6), 476-486.

Renfrow, D., & Impara, J. C. (1989). Making academic presentations effectively! *Educational Researcher*, *32*(5), 20-21.

Shiffrin, R. M., & Schneider. W. (1997). Controlled and automatic human information processing: In detection, search, and attention. *Psychological Review*, *84*(1), 78-96.

William, H. C. (2004). *Preparing a presentation and developing speaking skills society for academic medicin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수준(Applicable Levels): College/Higher

김학수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영어과
245-711 강원도 삼척시 교동 산 253
Tel: (033)570-6650
Fax: (033)574-6653
Email: hskim224@kangwon.ac.kr.

Received in Jan. 2006
Reviewed by Feb. 2006
Revised version received in Mar. 2006